

제 5 과: 요한계시록 12 장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역사가 실제로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시작기도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곳, 우리 아버지의 세상에서 그대가 잊지 않을 것은
죄악이 더욱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자 되심이네.
이 곳, 우리 아버지의 세상에서 그대는 왜 슬퍼하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늘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땅이 즐거워하네.

요한계시록 12 장 1-17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의 책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현재 장에서 우리가 논점을 완전히 놓치지 않도록 요한이 끼워 넣은 특별한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통치할” 소년이다(5 절). 이것은 시편 2:9 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 앞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11:18), 다른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 시편을 명백하게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한다.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이 불러 열방을 호령하게 하신 분이다 (물론 우리는 5 장을 뒤로 하고, 이 목표를 성취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당시 폭력적인 유대 민족주의 운동이 상상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이 사소하지만 핵심적인 단서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이런 종류의 상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요한은 그녀가 문자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한다. 이 여자 배후에 두 인물이 서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먼저 성경에서 흔히 ‘딸 이스라엘’, 야훼의 신부로 언급되는 이스라엘이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에게 자주 책망받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실한 참이스라엘, 하나님의 길에 머물고 자신의 소명을 따르려고 분투해 온 나라라고 여겨진다. 이 신실한 이스라엘,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처녀 딸 이스라엘’, 마리아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제 무대 중앙을 차지하는 이 여자는 출애굽기 19:6 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그녀는 열방을 위한, 또 실은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선택된 하나님 백성의 전체 이야기를 대표한다. 해와 달과 별과 그녀의 옷과 그녀의 발판, 그녀의 면류관을 만드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반대편에 가담한 세력들이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한 이유 역시 그 때문이다. 마침내 거대한 꼬리를 흔들며 악당이 무대에 등장한다. 이 악당이 이전 장에서 우리가 본 모든 고통의 배후에 있었음을 우리는 즉각 깨닫는다. 어둠의 비밀이 드러난다. 진짜 문제의 정체는 확인되었다. 커튼이

올라가 드라마 속 드라마, 이제 전체 책의 핵심 장면을 이루는 핵심 사건이 상연된다. 여자와 아이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용은 그 목적이 진해지기 전에 끝장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사자-어린양의 복음의 계시와 더불어 악의 궁극적 신비의 계시도 나란히 진행된다 (107-108).

무대가 마련되었다. 이 여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물론 이 여자의 끔찍한 패러디물인 또 다른 여자가 중간에 아주 크게 주목받을 테지만 말이다. 용 역시 그 중간에 대부분 우리와 함께할 것이고, 12-20 장 전체 내용의 일부는 요한이 글을 쓰는 대상인 교회에게 용이 어떻게 작동하고, 따라서 용의 권력이 어떻게 전복되는지 이해시키는 것이다. 교회는 현재의 분투와 고난이 하나님께서 근무 중에 주무시러 가셨다는 표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분투와 고난은 위대한 우주 드라마가 상연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들이 두렵지만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는 표식이다 (109).

다시 한 번 요한은 청중들을 거대한 우주 드라마의 지도 위에 둔다. 그들은 이미 얻은 위대한 승리를 알고 축하할 것이다. (누가복음 10:18 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천상의 검찰총장이 제기했을 수도 있는 비난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발자’는 더 이상 하늘에 자리가 없다.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 사탄은 광야로 도망한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물론 출애굽기 19:4 처럼, 하나님은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어 날아갈 수 있게 하셨지만 말이다. 그 뒤의 내용은 연재 만화의 우주 추격전에 가깝다. 용은 강처럼 흐르는 물을 토해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한다. 탕은 그 입을 열어 강물을 삼킨다. 여자가 도망한다. 그리고 성난 용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이들”이라고 더 상세히 정의된 여자의 ‘자녀들’이다. 즉 다시 한 번, 당신도 이 드라마의 일부다(라고 요한은 독자들에게 말한다). 용이 고약하고도 강력한 고발을 홍수처럼 더 많이 퍼부으며 당신을 붙잡으러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을 믿으라. (땅이 여자의 구출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이다. 창조 세계가 용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당신은 더 많은 것이 남았음을 예상해야 한다. 더 많은 박해와 공격, 더 많은 거짓 고발.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으리라. 악마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12 절).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겼고, 악마가 그 사실을 안다. 하지만 ‘고발자’로서의 기본 본성으로 인해 악마는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어린양이 성취하셨고 성취하고 계신 진리를 공격한다. 그것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고발하고, 억누르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부인한다. 인식하든 못하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진행 중인 전투에 가담해 있다. 요한이 자신의 독자들과 오늘까지 자신의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 이 장에서 묘사한 그림은 첫 장면에 불과하다. 더 많은 것이 남았다. 용은 마지막에 바다 결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옛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았듯이, 바다는 괴물이 등장할 어두운 곳이었다 (112-113).

리더: 요한계시록 12 장 17 절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당하고 있다고 봅니까?
2.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시간에 온 세계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합니까?
3. 여러분은 21 세기의 교회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말씀 같이 예전과 별 다른 없는 위기와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여러분은 본서에서 나타나는 용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이들과 어떻게 싸우려 한다고 봅니까?
5.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전투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침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용, 즉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고발하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너는 결코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결코 해내지 못할거야... 너는 가망이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그를 침묵시켜 주옵소서. 그가 어린양의 보혈로 이미 패배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아 새생명 얻었음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발자의 목소리가 진리의 목소리로 인해 묵살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